

# 良洞마을 傳統住居建築의 視覺構造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Visual Structure of Traditional Houses in Yang-Dong Village

이정미\* / Lee, Jeong-Mee

### Abstract

Most of the studies on traditional houses dealt with the exiting houses which were constructed Chosun Dynasty. But It is to be classified into many items which were point of view period, regional group and social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e early-Chosun Dynasty with late-Chosun Dynasty that the Visual Structure of traditional houses in Yang-Dong village. Early-Chosun Dynasty and late-Chosun Dynasty of traditional houses were well preservation in Yang-Dong village. Therefore traditional houses in Chosun Dynasty are able to classified according to period type of Early-Chosun Dynasty and late-Chosun Dynasty, which a study on the compare spatial composi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Yang-Dong village.

키워드 : 시각구조, 조선전기, 조선후기, 안채, 사랑채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밝히고 미래의 주거관을 제시하기 위한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에는 각계각층의 활발한 전통논의와 많은 선학들의 연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가나 사대부의 반가를 중심으로 평면의 유형분류, 지역별 문화권의 특성 등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로 거주자가 그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건축공간의 지각은 주로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뒤보스(R.Dubos)는 인간의 지각은 석기시대 이래로 많이 변해오지는 않았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눈에 떨만한 변화는 없을 것<sup>1)</sup>이라고 말하여, 시각구조에 의한 해석방법이 건축공간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선은 신홍사대부들이 주자성리학을 국시로 건국하였으며, 성리학적인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모든 제도를 개혁했다. 그러나 외래사상인 주자성리학이 조선의 성리학으로 정착되며 기존의 사회관습과 대응하여 새로운 규범적 질서체계를 형성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더우기 일상생활의 터전인 주거건축의 경우 그 특성상 일시에 건립될 수 없으므로 오랫동안

안 기존의 관습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자성리학이 도입되어 조선의 성리학으로 정착되는 사회사상적 변화는 주거건축공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시각구조분석에 의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의 각 민족이나 집단은 자신들이 처한 자연환경이나 고유한 생활양식, 가치관, 사회제도나 규범 하에 일정한 형식의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그 속에 정위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의 지배적인 사회규범인 성리학이 정착되는 시기를 바탕으로 전통주거건축 공간의 시대성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관점으로 건축을 해석하고 개별해 속에서 보편해를 찾아가는 노력만이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의 미래 주거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주거건축의 시각구조를 시대구분하여 비교·분석하므로 건축공간의 시대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현대 주거건축의 설계에 적용하므로 우리 주거의 정체성을 찾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조선시대의 시대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한 시각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이후로 나누어 선조대까지를 조선전기

\* 정희원, 중부대학교 건설공학부 강사

1)F. Wilson, 金兌俊 譯, 지각과 행동에 관한 도해적 연구, 도서출판국제, 1994, p.11

로 서술하며, 최근 조선시대의 사상사를 재조명하는 측면에서는 주자성리학이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종법제의 수용·정착·시행되는 과정으로 보아 15~16세기 주자성리학의 시기를 전기로, 주자성리학을 완전 소화하여 조선성리학으로 자기화시키는 율곡의 시기인 17~18세기를 중기로, 19세기 북학사상의 시기를 후기로 구분<sup>2)</sup>한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주거건축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로, 사상사적 측면의 시대구분에 따라 양동마을의 주거건축을 주로 시각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는 양동마을을 대상으로, 시기적으로는 성리학이 일반 생활에 정착되기 이전인 15, 16세기의 주거건축과 조선성리학이 정착되어 예학을 꽃피우던 17, 18세기의 주거건축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도면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차이점을 보완하였으며, 현재 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주거에서의 생활상 및 주거건축에 관한 전언, 그동안 개수한 곳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채와 사랑채의 시각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 2. 건축공간의 시각

공간지각의 대부분은 시지각으로 인식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물체지각(Object Perception)이 아닌 환경지각(Envir-onmental Perception)의 개념으로 공간은 여러 지점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의 총합으로 정의되며, 공간지각의 모든 것은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점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존한다.

공간지각은 빛과 그늘에 의하여 깊이감과 시간의 흐름이나 인간의 이동에 따른 변화를 지각하게 된다. 또한 공간에서의 수평과 수직의 연속성은 서로 상보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지각은 전체의 질서에서 각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간내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느낌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 역시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점사이의 상호관계에 의존한다. 공간내에서 방향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한다.

공간의 지각이란 지각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차단되어 질 수도 있다. 어릴때부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태의 정보를 차단하며, 다른 형태의 정보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익힌다. 이와같은 지각의 패턴을 확립시켜 두면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고정상 공간이라 하며, 사람들은 어릴때에 몸에 익은 고정상 공간을 어디에 가든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 2.1. 공간의 중심

인간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자기자신이므로 공간의 중심은 '나'이다. 그러나 나는 모호하고 변하기 쉬우며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사라져 버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선 중심이 지시되고 확정된 필요가 있으며, 건축이 갖는 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를 이 지상의 어떤 한 점에 묶어두고 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다.<sup>3)</sup> 중심은 기하학적인 구성개념이면서 신체와 관련된 건축공간의 형태와 공간의 방향성 및 그 내부의 감각을 말한다. 중심이라는 개념을 건축적으로 정의하려면 무엇이 무엇에 대하여 중심인가를 정확히 해야한다. 나와 다른 것의 특정한 관계를 규정짓고, 닫혀 있으면서 열려있는 에워쌈의 윤곽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중심은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사하는 하나의 초점 역할을 한다. 중심에서 발생하는 힘들은 이 중심주변에 고르게 분포하며 이것이 중심의 시각장(Visual field)이다. 따라서 중심은 기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모든 역동적인 중심(dynamic center) 주변에서 원형대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場(Field)은 힘들을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때 역동적인 중심의 위치는 종종 기하학적인 중심의 위치와 일치하기도 하며, 때때로 기하학적인 의미에서의 중심인 중앙의 위치를 언급해야만 한다.<sup>4)</sup>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시각 대상들은 관객의 자아와의 관계 속에서 접근과 후퇴라는 이중적인 역동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 2.2. 공간의 방향성

어떤 물체를 보고 시각적으로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색채나 형태에 시각적인 저항감이 생겨서 긴장, 힘, 중첩과 같은 시각역학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간과 방향은 운동감과도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공간 및 시간의 흐름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sup>5)</sup>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는 관찰자는 여러 방향을 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가 공간을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눈에서 결정되는 축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된다. 또한 인간의 시각은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다 볼 때 막힌 면(Solid)보다는 트인면(Void)쪽으로 흐르게 된다. 동양의 건축에 있어서 공간의 軸性은 구조적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내부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공간의 인지태도 및 자연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동양의 건축에서는 외부공간의 도입이나 이를 이용하는 처리기법들이 내부공간의 시선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건축공간에서는 장면과 단면 그리고 높이와 너비의 비가

3)香山壽夫 著, 金光鉉 譯, 건축의장 강의, 도서출판국재, 1998, p.32

4)Rudolf Arnheim, 정용도 옮김, 중심의 힘, 눈빛, 1995, p.17

5)Rudolf Arnheim,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1985, p.495

2)지두환, 조선시대사상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역사문화, 1998

클수록 강한 투시도 효과가 일어나므로 공간의 방향성이 커지게 되며, 높이와 너비비가 커지면 수평적인 방향성 외에 수직적인 공간 방향성이 만들어진다. 전통 주거공간의 경우 '口'자형의 안마당을 가지는 주거-특히 경상북도-의 경우가 'ㄷ'자형이나 병렬형의 주거보다 높은 층고를 가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높이와 너비비를 키우므로 강한 투시도 효과를 유도하고 그러므로 강한 수직적 공간의 방향성이 형성되어 실제보다 큰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

건물 설계도는 인간 행동영역이라고 아른하임(R. Arnheim)은 말한다. 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설계도는 투시도의 수렴선들로 수렴되며, 수평적 표면인 인간 행동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수직적인 시각의 세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건물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수직적인데 반해, 그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수평적이다. 따라서 설계도는 인간행동의 도표이며, 수직선은 인간지각의 도표에 해당된다.

### 2.3. 공간의 깊이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J. Gibson)은 그의 저서 시각세계의 지각(Perception of Visual)에서 평평함이나 깊이에 대한 지각을 키워주는 요인 모두에 공통되는 원리로써 3차원의 공간에서 기율기에 대한 지각을 언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공간감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기율기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지각적인 특질을 점차로 높여주거나 감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간의 깊이는 단일공간 내에서의 깊이감과 여러 공간이 맞물린 경우의 공간 깊이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단일공간의 깊이감을 갖는데 있어서는 투시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공간의 깊이는 증대된다. 예를 들어 입면체의 공간에서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클수록 투시효과는 증대되고 관찰자는 매우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된다. 전통주거에서는 종으로 장방형의 마당 즉, 세로가 긴 마당은 의례적이고 공간에 원근법을 주고 싶을 때 쓰는 기법이며, 세로가 긴 마당에서는 흔히 정면진입 방식을 취하게 된다. 대청이 전명 3칸인 전통주거의 평면에서는 대부분 시대 구분 없이 정면진입하여 마당과 대청이 동일한 축을 형성하며 실제보다 깊은 공간감을 지각할 수 있다. 또한 대청이 전명 2칸인 경우 진입의 형식은 대부분 우각진입이며 넓은 마당과 상대적으로 작은 대청이 사선의 시선축을 형성하며 강한 방향성을 형성하고,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공간밀도의 증가로 인한 공간의 변화감과 깊이감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게 된다.

## 3. 양동마을 전통주거건축의 시각구조 분석

6) 김홍석, 우리나라 주거의 禮와 美-조선후기 살림집의 예도와 미학-, 월간인테리어, 9901, p.132

### 3.1. 조선전기의 주거건축

양동마을 조선전기의 주거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리학이 정착되기 이전시기에 건립되었으며,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오는 친영제보다 데릴사위제인 남귀여가혼의 관습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관습은 주거건축에서 안채, 사랑채의 男女공간 구성, 안방, 건넌방과 큰사랑방, 작은사랑방 등 長幼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안채의 공간규모에 비해 사랑채의 규모가 작은 것도 관습적인 혼인제도와 적장자계승이라는 宗法질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동의 주거건축은 당시 최고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사랑채가

<표 1> 양동마을 조선전기 대상가옥

평면도		
당호	관가정:보물442호(1480)	서백당:중요민속자료 23호(1475)
평면도		
당호	향단:보물412호(1540)	무첨당:보물411호(1500)

형태적으로는 안채의 부속채 정도의 규모로 안채에 연결되어 있으나, 내외8)의 구분이 명확한 시각구조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1) 사랑채의 시각구조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서백당과 향단의 사랑채는 禮記에 명시된 바와같이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위치한다(男東女西)는 음양오행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안채의 동쪽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관가정과 무첨당살림채는 안채의 서쪽에 사랑채가 배치되어(男西女東)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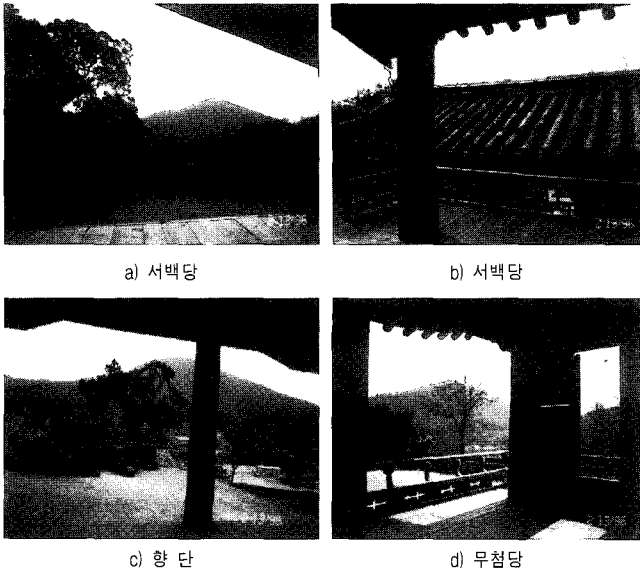
<그림 2>에서와 같이 서백당과 향단, 무첨당 사랑대청에서의 주된 경관요소는 마을의 안산인 성주봉이며, 서백당의 경우 사랑대청이 무릉산과 성주봉을 모두 안대로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대청의 전면에 행랑채를 배치하여 무릉산으로의 방향성

7)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김봉렬, 양동마을과 주택들(I), 이상건축, 9703

- , 양동마을과 주택들(II), 이상건축, 9704

8) 남녀가 일곱 살만 되면 한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물론하고 服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남녀가 서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内外한다고 했다.(동몽선습, 이기석역해, 흥신문화사, 1982, p.44)



<그림 1> 전기 대상가옥 사랑채에서의 조망

을 차단하고 성주봉으로 안대를 한정하고 있다.<sup>9)</sup>(그림1의 a, b) 참조) 그러나 관가정<sup>10)</sup>은 마을 서편의 형산강 불기와 평야의 논밭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안고 건축되어져 있으며, 그러한 절경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사랑대청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양동의 전기 주거건축은 내부의 사용자가 의도된 안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구조를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채에서 사랑대청과 사랑방은 모두 동일한 안대를 취하며 사랑대청의 경관요소인 마을의 안산을 사랑방에서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사랑방 전면에는 모두 뒷마루나 쪽마루가 설치되어 창호 프레임으로 트리밍된 경관을 다시 한번 상부 처마선과 하부 마루선으로 트리밍하게 되어 2중의 시각틀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각요소의 중첩으로 공간의 중첩을 지각하게 되며, <그림 1>의 d)무첨당과 그림2의 관가정은 쪽마루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이러한 효과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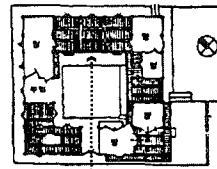
<그림 2> 관가정 사랑방에서의 조망

9) 이러한 수법은 관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관가정의 두 칸 사랑대청 역시 성주봉과 평야로의 두 방향성을 가지지만 성주봉쪽으로 향하는 안대에 커다란 향나무가 식수되어 있으므로 성주봉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차단된다. 그러나 향나무의 식수가 그런 의도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관가정 사랑대청의 안대는 명확하게 형산강 줄기와 평야의 절경으로 설정되어 있다.(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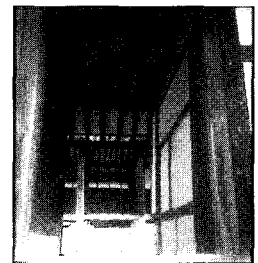
10) 관가정은 당시 최고의 유학자였던 손중돈이 분가하면서 지은 집으로 400년 동안이나 손씨가문의 증가로 사용되던 집이며, 일반주거에서 대부분 男東女西의 구성원리가 지켜졌음에도, 내부 사용자의 시각구조를 우선하는 풍수적 관념이 주거의 배치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첨당 역시, 살림채 서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마을의 안산인 성주봉을 안대로 하기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2) 안채의 시각구조

건축가인 포르토게시(Portoghesi)는 에너지의 집중도가 높을 때 물질(Matter)에 관해 이야기하고 집중도가 보다 낮을 때 장(Field)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하는 주변의\* 구축세계가 갖는 성질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전기의 대상건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마당과 대청이 수평적 구성축을 형성한다. 따라서 안채로 진입하는 진입자의 측면에서는 두 공간은 시각적으로 상호침투하며, 이때 주변의 건물들로 위요된 안마당은 개방된 하늘과 수직축을 형성한다. 안마당에서 구성적 수평축과 지각적 수직축이 직교하므로 중심과 통로는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중심으로서의 안마당은 명확한 공간장(Field)으로 지각된다. 이와같이 안마당이 강한 중심성을 가지므로 안대청의 좌우에 배치된 안방과 건넌방의 질서체계는 혼돈을 빚게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한 위계의 요소를 찾을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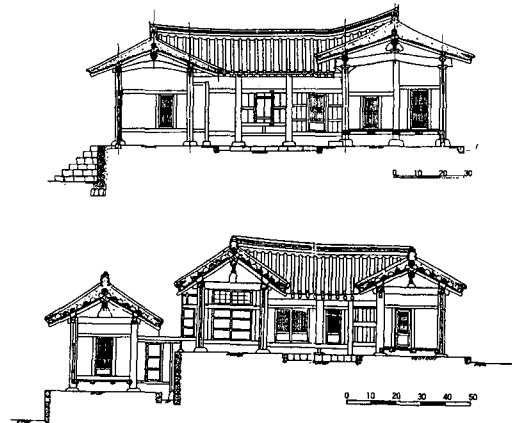
a) 평면도



b) 진입구조

<그림 3> 서백당 안채 진입의 시각구조

특히 2x2의 작은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향단의 안마당은 마당을 둘러싼 채들의 기단높이가 동일하므로 물리적으로 폐쇄적인 공간구성을 이루며, 이러한 폐쇄성의 강조로 열린 하늘로 향하는 안마당의 지각적 수직축이 강하게 지각된다. 따라서 작고 폐쇄적이지만 중심성이 강한 안마당을 형성하게 된다. 즉, 안마당과 안대청이 동일한 축선상에 구성되는 경우 안마당은 수평축과 수직축이 교차하는 안채공간의 중심으로써 명확한 공간장을 형성한다.



<그림 4> 관가정과 향단의 단면도

### 3.2. 조선후기의 주거건축

양동의 조선전기 대상가옥은 모두 사대부가이지만, 후기의 대상가옥은 모두 향반가이므로 가옥의 규모나 의장상의 논의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선후기의 전통주거건축은 전체규모가 전기의 주거보다 감소하더라도 사랑채는 별도로 분화하며 규모는 확대하는 일반적인 성향<sup>11)</sup>과 양동마을 후기 대상가옥의 성향이 일치하고 있으며, 전기와 후기의 주거구성이 모두 'ㄱ'자형으로 지역성을 가지는 것 등, 사회적으로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각구조를 통한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표 2> 양동마을 조선 후기 대상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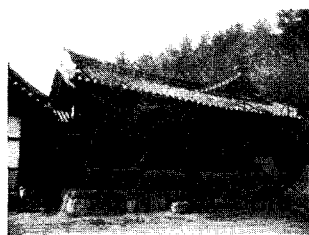
도면					
당호	수졸당: 중요민속자료78호(1616)	이희태가: 중요민속자료77호(1733)	이원봉가: 중요민속자료75호(1730)	이동기가: 중요민속자료76호(1780)	이원봉가: 중요민속자료74호(1840)

#### (1) 사랑채의 시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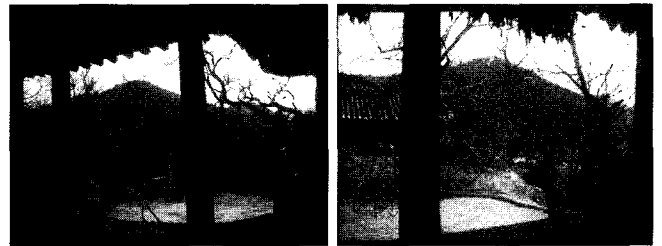
양동마을에서 전기와 후기 주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채 규모의 확대라 할 수 있다.<sup>12)</sup> 표2에서와 같이 후기의 대상가옥 사랑대청은 모두 정면 2칸이며, 이는 안대청의 규모와 동일하거나 크다. 사랑채의 형태나 진입의 수법이 전기처럼 극적이지 않은 일자형의 형태지만 사랑채 기단의 높이를 높게 구성하여 공간장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직적 방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와 맞닥뜨리게 되는 사랑채의 높은 기단은 상하의 질서를 강조하는 중요한 시각요소가 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졸당을 제외한 모든 대상가옥은

안채를 기준으로 동쪽 날개채에 사랑을 구성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축은 이원봉가옥을 제외한 모든 주거가 직교하고 있다. 이동기가옥 사랑채가 증축되기 이전에 안채의 동편 익랑이 사랑채였



<그림 5> 이원봉가옥 진입(사랑채)



a) 이원봉가옥      b) 이원봉가옥

<그림 6> 조선 후기 대상가옥 사랑채의 조망

는 반면, 안채는 서향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의 건립에 안에서 바라다보는 경관이 주된 계획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안채의 시각구조

양동의 조선후기주거건축은 모두 'ㄱ'자형이므로 전기의 대상가옥에 비해 안마당의 물리적 개방감이 확대되었으며, 안채의 평면유형은<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방과 안대청이 모두 안마당에 접하는 비대칭적 유형으로 평면의 유형이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방형의 마당에서 장방형의 마당으로 변화한 후기 대상가옥의 진입방식은 이동기가옥<sup>14)</sup>을 제외하고 모두 우각진입이며, 진입자의 시선축은 안마당을 거쳐 사선으로

11)崔 壹, 朝鮮 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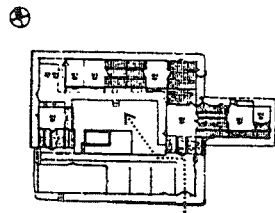
12)향단의 경우 서백당이나 관가정에 비해 사랑의 규모가 크지만 안채의 규모와 비교하면 익랑정도의 규모이다. 이희태 가옥의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주거에서 행해지는 제례의식이 기제사는 안채의 대청에서, 위패를 많이 모시는 명절의 제사는 사랑대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유교적 行禮가 중요하게 인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제례의식은 사랑대청에서 행하는 가옥이 늘고, 자연스럽게 안채의 대청은 축소하고, 사랑대청은 확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전통주거공간의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정미, 청주대, 석사논문, 1996, p.24

14)이동기가옥은 20세기 초 원래의 사랑채가 소실되고 현재와 같은 어색한 팔작지붕의 사랑채가 신축되었다고 하며, 현재 사랑채 좌측에 있는 화단에 주초석이 남아 있다. 즉, 소실되기 전 사랑채의 원형은 다른 주거와 동일한 형태이며, 진입방식 또한 우각진입이었을 것이다.



a)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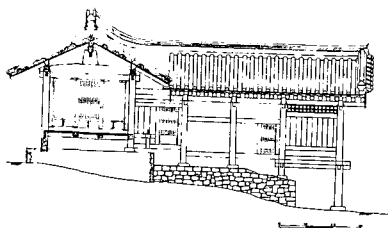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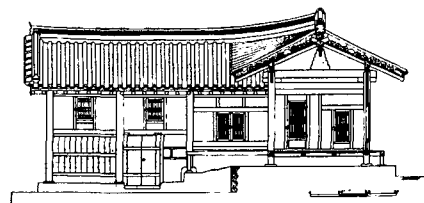
b)



c)

<그림 7> 이원봉가옥 안채의 진입과정

안방과 대청의 연결부분 모서리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안중문에서 안마당, 안대청으로 方向性을 가지는 시선축은 단계적 공간지각을 유도하고 공간의 연속성과 깊이감을 유도한다. 또한 시선축의 초점이 안대청과 안방이 되므로 안채 내에서 안방의 위계를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공간의 단계적 지각은 결과적으로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이 의미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기주거건축과는 공간의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이회태가와 이원봉가의 단면도

이와같은 공간의 상관성은 각각의 채들의 구성수법과도 관계가 있으며, <그림 7>에서와 같이 각각의 채들은 기능과 위계에 따라 기단의 높이를 다르게 구성하므로 행랑채와 안채의 기단 높이차는 1.5M정도가 된다. 따라서 안마당의 위요감이 낮으며 전기의 절대적 공간질서요소인 안마당과 하늘의 수직축은 약화된다. 즉 안채공간의 중심이 비워진 마당에서 시선축의 초점인 建築物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전기와 후기의 주거건축은 동일

한 지형에 배치되어 있으나 지대를 조성하는 방법이 다르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 4. 양동마을 전통주거건축 시각구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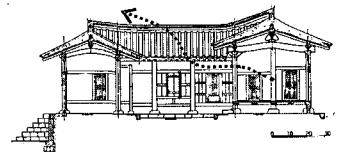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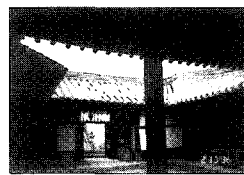
##### 4.1. 이원적 시각구조

현상이나 대상과 같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인식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좋은 형태'란 개념에 달려있다. 좋은 형태나 질은 몇가지 특징에 의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칭성과 폐쇄성, 단순성이다. 좋은 형태란 잘 분절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관찰자에게 영속적이고 순환하려는 인상을 준다.<sup>15)</sup> 양동마을 주거의 시각구조는 진입자의 측면에서는 수직적 위계를 암시하는 권위적 형태를 지각하게 하며, 내부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폐쇄적 건축공간 속에서 자연환경을 수용하므로 개방감을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양동의 지역적 특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후기 주거의 구성방식에서도 변화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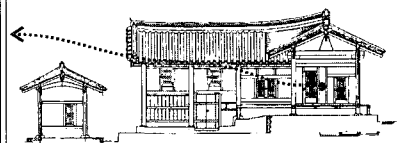
하나의 기둥도 그 두께나 높이에 따라 자신의 공간영역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미치는 범위까지 다르게 한다.<sup>16)</sup> 서백당, 관가정, 향단에 비해 후기의 주거들은 모두 높은 기단위에 안채와 사랑채를 구성하고 몸채가 미치는 힘의 범위 즉, 시각적 공간규모를 확장시키므로 진입자가 주거의 권위를 지각할 수 있다.

전기의 주거건축에서는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고자 행랑채의 기단을 높이고 안마당의 높이를 맞추었으나, 후기에는 행랑마당과 안마당의 높이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몸채와 익랑채의 기단을 높게 구성하여,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진입자는 건물의 위계와 개방감을 동시에 지각하게 된다. 후기 주거의 형식은 지형을

<표 3> 안대청에서 사용자의 시각구조



a) 전기대상건축 사용자의 시각구조



b) 후기대상건축사용자의 시각구조

15) 지각과 행동에 관한 도해적 연구, F. Wilson, 金旻俊 譯, 도서출판국제, 1994, p.89

16) 김태영, 건축 입방체, 대우출판사, 1998, p.57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목채와 익랑의 기단높이가 행랑채의 기단 높이와 1.5m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구성하여 변화있는 공간감을 지각할 수 있다.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전기의 주거보다 후기의 주거에서 개방성이 강하게 지각되는데, 사용자의 시각을 하늘(안산)로 향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선아래에 보이는 지붕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의 주거는 지붕 용마루 선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후기에는 행랑채의 용마루선이 급격하게 낮아져 개방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지붕면은 행랑채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입면을 하나의 요소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의 시각이 분산됨이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요소<sup>17)</sup>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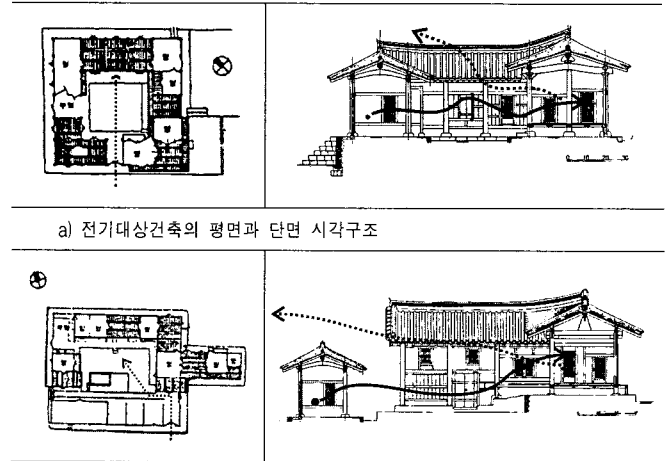
## 4.2. 중심의 전환

전통주거에 있어서 채의 구성에 의해 생겨나는 마당은 경우에 따라서 양(Positive)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음(Negative)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에워싸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 마당은 지각적인 중심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기하학적 중앙이 되기도 한다. 마당을 중심으로 채와 채로 구성되는 전통주거의 공간은 대부분의 경우 개구부를 직선축에 배치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추구한다. 이때 내·외부공간은 교차반복되며, 밝음과 어두움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어 실제보다 깊은 공간감을 유도하게 된다.<sup>18)</sup> 특히 3칸 대청이 중앙에 배치되는 ‘口’자형 주거인 경우 중문간과 안마당, 대청이 직선축에 위치하므로 명암의 교차반복에 따른 공간의 깊이감이 형성되며, 특히 안대청 배면의 판문이 열려있는 경우 진입시 직선의 직선축은 더욱 강하게 지각된다. 양동마을 전기의 대상가옥은 안목채 기단의 높이가 대체로 낮으며 안마당을 위요하는 몸채, 익랑채, 행랑채의 기단 고저차가 작으므로, 안마당의 에워싸인 영역감이 강하고 그에 따라 채로 위요된 마당에서 하늘로 향하는 지각적 수직축이 강하게 지각된다. 따라서 전기의 대상가옥은 안마당은 구성적 수평축과 지각적 수직축이 직교하게 되어 사용자나 진입자 모두에게 명확한 주거건축의 중심으로 지각된다.

대부분 일자형으로 구성되는 사랑채의 경우 위요감이 적은 마당의 공간(Field)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의 집중도가 높은 물질(matter)로서의 사랑채가 공간의 중심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 사랑채가 독립된 채로 분화하고 진입시 정면성을 가지도록 배치된 후기의 대상가옥에서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하며, 동일한 지형의 대지에 배치되더라도 전기주거보다 후기주거의 사랑채 기단높이가 높은 것도 에너지의 집중도를 높여 사랑채의

공간영역을 확대하고자 한 의도로 분석될 수 있다. 높은 기단위에 축조된 사랑채의 사용자는 낮은 기단의 사랑채 사용자보다 수직시야가 넓어지고, 마을의 안산인 성주봉이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안대를 설정한 사랑대청을 사랑채 공간 중에서도 중심으로 지각하게 된다.

<표 4> 진입유형과 시각구조



a) 전기대상건축의 평면과 단면 시각구조

b) 후기대상건축의 평면과 단면시각구조

후기의 주거는 모두 튼 ‘口’자형의 주거며, ‘口’자형 주거보다 상대적으로 안마당의 위요감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진입의 방식이 모두 우각진입으로 변화함에 따라 진입자와 사용자 모두 시선축은 사선의 축을 형성하게 되며, 전기의 주거에서처럼 통일된 공간감의 지각보다는 분할적 성격의 공간지각으로 변화하는 공간을 지각하게 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같이 후기의 대상가옥은 모두 몸채의 기단 높이를 높게 구성하므로 진입자의 측면에서는 안중문에서 마당, 대청으로 점차 상승하는 사선의 시각축으로 공간의 연속성과 깊이감을 지각하게 되며,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수직시야가 넓어져 하향의 시선축을 구성하므로 높은 공간적 위계를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안마당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의 위요감이 감소되었고, 진입자의 측면에서는 진입시의 사선의 구성축의 목표가 안대청과 안방으로 설정되어 안채의 중심이 안대청과 안방으로 지각되며,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수직시야의 증대로 안마당보다는 안산의 차경이 더욱 강한 지각대상물이 되어, 지각자의 위치에 따라 안방, 안대청 등이 공간의 중심으로 지각되는 성향으로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후기의 주거에서는 기하학적 중앙은 여전히 마당이 되지만, 지각적 중심은 지각자의 위치에 따라 마당이 되기도 하고 안목채가 되기도 하는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 5. 결론

양동마을의 전통주거건축을 조선전기와 후기로 시대구분하여 시각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7)김태영, 같은책, p.135

기준(datum)이란 용어는 음악에서 나온 것이며, 다양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요소를 공통의 것에 의해 하나의 전체로 종합하는 것으로서 건축 구성체 내의 다른 요소들과 관계지어질 수 있는 참조선(기준선)·면·입체 등으로 나타난다.

18)이정미, 같은책, pp.34-35

첫째,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는 전기에는 병렬축이고 후기에는 직교축이지만, 사랑채의 안대는 전·후기 대부분 마을의 안산인 성주봉이다. 전기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병렬축으로 구성되지만 차단과 개방의 시각요소 도입으로 의도적으로 사랑채의 안대를 조정하며, 후기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직교하여 사랑채의 안대는 성주봉이 되지만 안채의 좌향은 서향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대부분 일자형으로 구성되는 사랑채는 전면에 모두 빛마루나 쪽마루, 난간이 설치되어 사용자는 창호프레임과 함께 지붕 처마선과 빛마루(쪽마루)선의 이중 시각틀을 통해 외부공간을 조망하게 되므로 형태의 중첩으로 인한 공간의 중첩, 공간속의 공간을 지각하게 된다.

셋째, 전기에 비해 후기의 대상가옥은 안채와 사랑채의 기단높이를 높게 구성하여 공간장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직적 방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전면 행랑채는 기단높이를 낮게 하므로 진입자의 측면에서는 위계를,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하늘과 안산의 차경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원적 시각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안채로의 진입은 전기에는 정면진입, 후기에는 모두 우각진입한다. 이러한 진입구조의 변화는 마당의 규모, 안대청의 크기, 안방과 건넌방의 위계상의 문제와 모두 상관성이 있으며, 특히 정면진입 하는 전기의 주거에서는 진입의 수평축과 하늘로 향하는 지각적 수직축이 안마당에서 교차하므로 기하학적으로나 지각적으로나 안마당은 안채의 중심공간이 되며, 우각진입 하는 후기의 주거에서는 사선형 시각축의 초점(Target)이 안대청과 안방이 되므로, 기하학적 중앙은 안마당이 되지만 지각적 중심은 안대청과 안방이 된다. 즉, 안채에서 이러한 중심의 전환은 사용자가 위치하는 안몸체의 기단의 높이와 마당의 개방성의 정도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2. 김봉렬, 양동마을과 주택들(I), 이상건축, 9703
3. - , 양동마을과 주택들(II), 이상건축, 9704
4. F. Wilson, 金빛俊 譯, 지각과 행동에 관한 도해적 연구, 도서출판국제, 1994
5. 香山壽夫 著, 金光鉉 譯, 건축의장 강의, 도서출판국제, 1998
6. Rudolf Arnheim,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1985
7. 김태영, 건축 입방체, 대우출판사, 1998

<접수 : 2002. 12. 30>